

---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08년 12월 12일(금)에 배포되었습니다.

---

## **개도국 성평등,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해법 찾는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8년 12월 12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mailto:info@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ODA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을 뜻함. (외교통상부 <http://www.odakorea.go.kr/> 참조바랍니다.)

###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 현황과 과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 제 :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 현황과 과제」</li><li>○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13:30 - 18:00</li><li>○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li><li>○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li>○ 후 원 : 외교통상부 · 교육과학기술부 · UNDP 한국사무소</li></ul> |
|---|

## □ 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발표자 일부와의 1:1인터뷰를 심포지움 전날인 12월 16일 오후와 당일 12월 17일 오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월 16일 오후 2시 - /인사동 서머셋 팰리스  
패티 오닐 성평등네트워크 담당관(OECD 개발원조위원회)
- 12월 17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30분/인사동 서머셋 팰리스  
패티 오닐 성평등네트워크 담당관(OECD 개발원조위원회)  
아네트 쉐켈드 Oxfam(국제구호단체) GB 컨설턴트

- 이번 국제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초청자와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info@kwdimail.re.kr](mailto:info@kwdimail.re.kr))

## □ 국제 심포지움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2008년12월 17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ODA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UNDP 한국사무소의 후원 하에 이루어진다.

-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선진 공여국과 수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원조정책의 성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제1세션은 “개발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패티 오닐 성평등네트워크 담당관(OECD 개발원조위원회)이 “성평등과 개발원조”를 주제로, 태코 은디아에 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 프로그램 전문가가 “빈곤 철폐와 젠더 : 아프리카의 사례”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혜 연구위원과 정혜선 연구원은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신혜수 UN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과 문경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제2세션은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위한 개발원조”를 대 주제로 진행된다.

- 제2세션에서는 박강호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이 “개발원조에 있어 여성 역량강화의 역할”을 주제로, 아네트 셀켈드 Oxfam(옥스팜) 컨설턴트가 “개발원조와 성 분석 : 인도네시아 사례연구”를 주제로, 코 미야오이 UNDP 아태지역센터 젠더 자문관은 “유엔의 국별 프로그램과 성 주류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와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 한국 개발원조 경험 바탕으로 개도국에 적극 공헌해야

- 한국은 국제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양적, 질적 제고가 시급하며 그 토대가 되는 대중적 지지 확보와 정치적 의지 강화, 실천적 전략 개발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같은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 정책의 성주류화가 요구된다.

## □ 개발원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인식 제고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노력과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혜 연구위원과 정혜선 연구원은 “사회 문화적 편견과 제약으로 여성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 해왔으며,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발표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이 같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문

제의를 가지고 지난 2년에 걸쳐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 밝혔다.

\* 별첨 1. 인터뷰 예정 발표자 약력

별첨 2. 주요 발표문 요약본

별첨 3. 회의일정

별첨 4. 우리나라 ODA 관련 참고자료

## 별첨 1. 인터뷰 예정 발표자 약력

### 패티 오닐(Patti O'Neill)

뉴질랜드 국적의 패티 오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담당관. DAC은 우리나라가 OECD 산하 위원회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위원회로, 2010년까지 가입할 예정임. 성평등네트워크는 DAC의 23개 회원국에서 개발원조와 성평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됨. 패티 오닐은 2004년 OECD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단의 성평등 자문관을 역임했으며, 1990년대에는 뉴질랜드 여성부 고위관리직에 재직하였음.

### 아네트 샬켈드(Annette Salkeld)

Oxfam International의 성평등 컨설턴트이자, 호주 멜번 소재 '환경 빅토리아(Environment Victoria)'의 지속가능한 생활 프로그램 소장. 2007년 1-8월, 옥스팜 국제개발 컨설턴트로서 성분석,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함. 지난 15년간 지역사회와 환경부문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환경지속가능성, 사회정의, 성평등의 연계성을 탐색해 왔음. 호주와 국제사회에 걸친 기층그룹 차원의 지역사회 활동에 기반하여 활동해 왔음.

## 별첨 2. 주요 발표문 요약본

### 제1세션 제1발표. 성평등과 개발원조

발표자: 패티 오닐(Patti O'Neill), OECD/DAC GENDERNET 담당관

선진 공여기관의 개발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함. 지난 20-30년간에 걸쳐 주요 공여기관은 개발사업의 관행과 접근법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비판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 프로그램을 새롭게 활성화하였음. 특히 주요 공여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 성 주류화와 여성권한부여에 대한 접근법의 재조정
- 새로운 정책 및 전략적 접근법 개발
-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원조에 대한 투자의 증가
-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성평등 달성 촉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

### 제1세션 제3발표.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발표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혜 연구위원, 정혜선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사회 문화적 편견과 제약으로 여성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 해왔으며,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이 같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년에 걸쳐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는 형평성의 문제로서 공여국의 당위적 의무이며,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자 목표임. 동 발표에서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부여를 개발원조의 목표로 삼고,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는 주요 공여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에 대한 성 분석을 시도함.

## **제2세션 제2발표. 개발원조와 성 분석: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발표자: 아네트 샬켈드, Oxfam GB 컨설턴트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필요와 욕구는 상이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 방법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은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생활대책 전략, 필요, 욕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동 발표는 2007년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에서 Oxfam GB가 수행한 인도적 생활대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성 분석을 소개하고 있음. 성 분석이 사업 계획에 앞서 수행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 후에 수행되면서, 여성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계획된 사업이 초래한 문제점을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논의함.



### 별첨 3. 회의일정

#### <회의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사 회: 장혜경 기획조정본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회사: 김태현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영사: 오 준 다자외교조약실장(외교통상부)  
축 사: 공성진 최고위원(한나라당)  
제 양 대표(UNDP 한국사무소)

14:20-15:40    제1세션. 개발과 여성

사 회 : 김은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성평등과 개발원조  
패티 오닐 성평등네트워크 담당관(OECD 개발원조위원회)
- 빈곤 철폐와 젠더 : 아프리카의 사례  
태코 은디야에 프로그램 전문가(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
-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김영혜 연구위원, 정혜선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1. 신혜수 위원(UN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토론2. 문경희 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40-16:00    휴 식

16:00-17:20    제2세션.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위한 개발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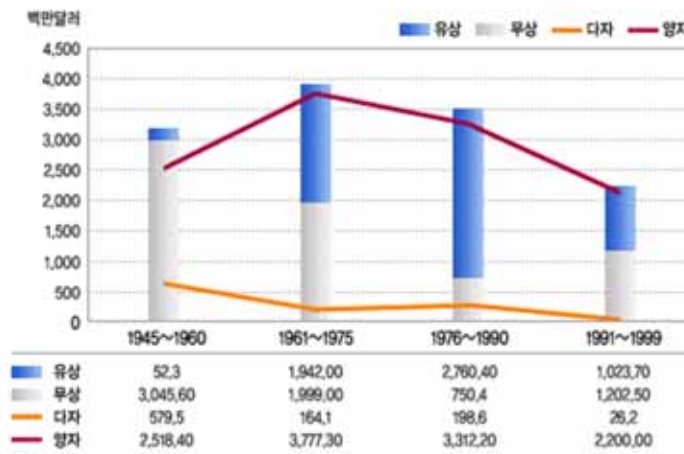
- 개발원조에 있어 여성 역량강화의 역할  
박강호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
- 개발원조와 성 분석 :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아네트 샬켈드 Oxfam(옥스팜) 컨설턴트
- 유엔의 국별 프로그램과 성 주류화  
코 미야오이 젠더 자문관(UNDP 아태지역센터)
- 토론1. 장현식 이사(한국국제협력단)  
토론2. 에드워드 리드(Asia Foundation(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7:2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별첨 4. 우리나라 ODA 관련 참고자료(외교통상부 자료 참고)

### □ 우리나라의 원조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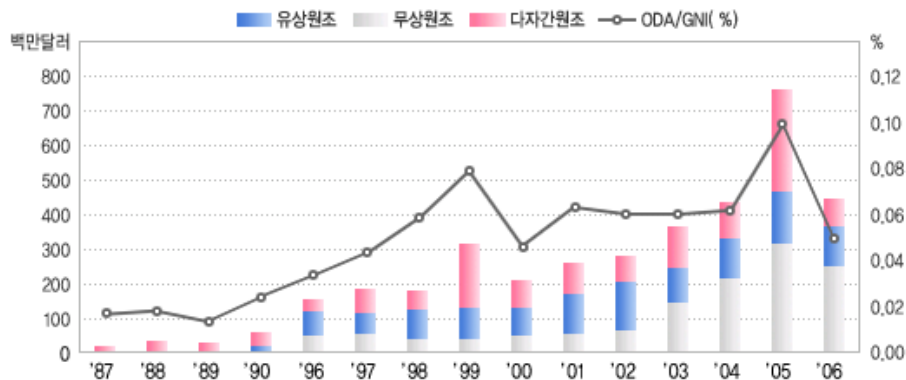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76백만불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다.
- 무상원조는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5년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 원조의 힘이 컸다.



<표-1> 우리나라 개발원조 수원 규모(외교통상부 자료 참고)

## □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응하여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하였다.
-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으로부터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되자 점차 우리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를 확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다.
- 정부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설치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원조실시체제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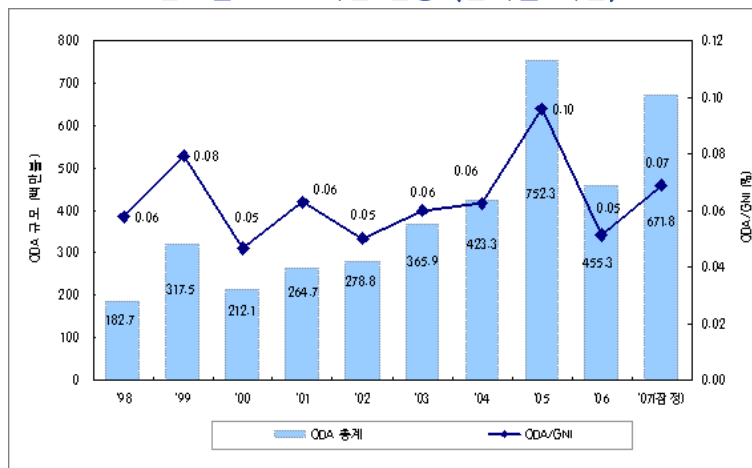


<표-2> 우리나라 개발원조 공여 현황(외교통상부 자료 참고)

## □ 우리나라의 ODA 지원방향

-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1991년 1.1억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는 2006년 4.6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이 2006년 기준 0.05%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대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으로 OECD 30개국중에서 29위에 머물러 있다.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협력단

- 2005년에는 원조규모가 급증하여 752.3백만불, GNI의 0.1%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IDB로의 신규 출자 등에 따른 예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2006년은 2005년에 발생하였던 원조증대의 예외적인 요인들이 소멸하여 총 ODA 규모(순지출)가 전년대비 39.5% 감소, 455.3백만불을 나타내었다.
- 우리 정부는 2007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까지

지 가입 할 것임을 결정하고, DAC가입 준비반을 발족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08%에 해당하는 1조원 규모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연도인 2015년에는 0.2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한국의 ODA 지원방향은 외교통상부의 ODA코리아 사이트(<http://www.odakorea.go.kr/>)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http://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